

7월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일시 및 장소 : 2022.7.19.(화) 오후 3시, 12층 대회의실

참석 위원 : 박찬재 부위원장, 정의식, 이현숙

정경모, 김희중 김세한, 천경숙 7인(권혁남, 문해주, 유환익 위원 서면제출)

회사 참석 인원 : 보도본부장, 시청자센터장, 심의실장

1. 다음 회의 일정

- 8월 일정 : 8월 23일(화) 오후3시

■ 주요 내용

▲ 박찬재 부위원장

- <06. 22 "편의점이 일회용 컵 수거?"...점주들 '부글부글' > 오는 12월부터 시행 예정인 일회용 컵 보증금제와 관련, 정부가 반납 처에 편의점을 넣는 것을 고려하자 편의점 점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기존 적용 대상인 프랜차이즈 점주들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보도로 반발의 이유와 제기하는 문제점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분석으로 시청자 입장에서 바로 쉽게 이해가 되었으며 반드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함을 느끼게 하는 보도로 매우 좋았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정부의 보완책(일회용 컵 반납 처에 편의점을 포함, 보증금 300원에서 200원으로 인하, 일회용 컵 바코드 인식용 라벨 부착 비용을 프랜차이즈 본사가 맡는 방안)에 대하여 문제의 근본적인 접근이 아닌 무리한 땀질식 처방이라 말하고 세척, 보관에 따른 비용 및 위생의 문제 등 추가되는 부담을 여전히 일방적으로 자영업자들에게 전가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부담을 지울 곳을 정하는 것을 넘어 비용 부담과 이에 따른 반발을 완화할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분석 보도하여 깊은 공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지난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자영업자들의 거센 반발로 6개월 연기되었던 제도로 적용 대상의 형평성의 문제, 추가 발생 비용 문제(스티커 구매 비용, 수도세, 세제비, 인건비 등), 특히, 자칫 매장이 일회용 컵 쓰레기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와 프랜차이즈에 많이 사용되는 우유, 휘핑크림 등은 잘 닦이지 않기 때문에 세균의 번식 등 위생의 문제 등등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개선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지금처럼 언론에서 꾸준한 관심과 지속적인 보도가 이어지길 바랍니다.

- <06. 22 [경제읽기] DSR 규제 강화...서민·실수요자는 대출 완화> 가계 부채의 급증을 막기 위해 정부가 7월부터 금융권 대출의 DSR 규제를 강화하고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요건은 완화와 우대를 확대키로 함에 따라 앞으로 대출 규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책의 실효성 어떠한지에 관한 보도로 경제평론가의 차분하면서 세심한 설명과 정책의 실효성 등에 대하여 알기 쉽게 풀어 보도하여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주제임에도 시청자의 입장에서 바로 이해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특히, 생애 최초로 집을 구입할 경우 표면적으로는 LTV를 80%까지 완화한다. 즉, 집값에 80%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지만 이것은 명목상의 정책으로 사실상 한도가 6억원에 묶여있기 때문에 어떤 집을 사더라도 최대 80%까지 대출이 나온다가 아닌, '최대 6억원까지 대출이 나오는 것'으로 핵심을 정확하게 집어주었습니다. 정책의 한계성으로 최대 대출 6억원을 제외한 부분은 수요자가 준비하여야 하나 서울과 수도권의 평균

집값이 10억원~12억원으로 집을 구하는 것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실질적으로 수요에 부합 하느냐는 것에 대한 이견이 있다는 점과 생애 최초일 경우 아마도 나이가 어릴 가능성이 있는 구매자가 나머지 금액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도 있음을 지적하여 형식적으로 LTV를 대폭 완화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규제가 유지되고 있어 전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DSR 규제가 풀리지 않는다면 내용적으로 조삼모사가 될 가능성이 있음을 짚어주어 좋았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앞으로도 정책의 심층적인 분석과 시청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보도가 이어지길 바랍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보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일상생활에 매우 밀접한 문제인 만큼, 앞으로도 실제 시행시점까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점들을 짚어 보도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하락기에 들어서고 금리 상승으로 '하우스푸어' 등장 가능성이 큰 상황인 만큼, 앞으로도 부동산과 관련 금융제도 변화와 사회적 영향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짚어볼 예정입니다.

▲ 정의식 위원

- 6/20 코웨이 정수기에서 니켈 검출되었다는 보도를 하였는데, 이럴 경우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상세한 부연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니켈은 동전이나 자석, 귀금속류, 스테인리스, 가전제품 등을 만들 때 흔하게 쓰는 금속이다. 하지만 흔하게 쓴다고 안전한 것은 아니다. 니켈은 국제암연구소가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물질로 호흡기를 통해 폐에 쌓이거나 노폐물을 거르는 신장에 쌓이면 폐암이나 신장암을 일으킨다. 실제 동물 실험에서 니켈을 섭취시켰더니 신장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미국 뉴욕대 의대는 만성적으로 니켈에 노출됐을 때 폐암이나 심혈관질환, 신경관손상, 소아 발달장애, 고혈압 등을 일으킨다고 보고하고 있다. 니켈은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니켈을 쓰는 제조업체에서는 산업용 마스크 등으로 니켈 중독을 막고 있다.

- 6/21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아데노바이러스와 노로바이러스가 많이 줄었다고 보도하였는데, 이들 바이러스가 어떤 것인지, 인체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에 대한 추가 설명이 없는 것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 6/28 clostridium perfringens(크로스트리디움 퍼프링겐스)에 대한 보도 중,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병원균에서 나오는 독소의 영향 때문에, 120°C, 20분 끓여도 장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보도 및 그래서 음식을 즉시 섭취하거나 보관하는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및 예방을 위한 개인 위생법 등에 대한 설명이 좋아 보였습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 정수기 니켈 검출 관련 기사는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른 분석 기사로, 제조회사의 소비자 대응 부실과 소비자보호 강화를 촉구한 법원의 판단을 전달한 기사였습니다. 니켈의 위험성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시켰더라면 더욱 시청자 친화적인 기사였을 것입니다. 좀 더 세심하게 기사를 작성하겠습니다.

- 아데노바이러스 감소 관련 단신에 해당 바이러스에 대한 소개가 부족했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다만 형식상 40초 미만으로 꾸며야 하는 단신의 성격상 세부 소개가 어려웠고 두 바이러스 모두 7세 이하가 감염 다수를 차지하는 바이러스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는 장염, 고열 및 호흡기 증상의 원인으로 비교적 알려진 바이러스란 점을 고려했습니다. 단신

으로는 부족한 점을 감안해 7월1일자로 이들 바이러스의 동향에 대해 다루는 리포트도 제작했습니다.

▲ 이현숙 위원

- [세로뉴스] 홍석천과 춤춘 아재들 누구?...동성 파트너와 함께 온 대사님(7월7일)

국내에서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는 이슈인 성소수자에 대해 다루는 것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뉴질랜드와 미국 대사의 사례를 통해 객관적으로 접근하려고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적은 의료비에 몰리는 환자들...인력 확충도 '난항'(7월 7일)

적은 인력의 문제와 함께 성별 임금격차도 다루었는데, 이후에도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특정 성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점은 없는지까지 분석하려는 시도가 계속되면 좋겠습니다.

- 아동·청소년들, 온라인서 '잊힐 권리' 확대된다(7월11일)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이지만 아동·청소년들의 권리와 관련된 기사라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 대상 연령을 만 14살 미만에서 만 18살 미만까지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보면서 우려가 생겼습니다. 사각지대를 없애고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려는 고민에서 나온 정책이지만 아동·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의사결정 능력 등 섬세하게 논의가 필요한 내용이라 이후 기회에 된다면 따로 다뤄보면 좋겠습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선 방안을 발표하는 내용이어서, 추후 계획이 확정되는 시점에서 추가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모 위원

- 장애인에 대한 예산, 지원체계 확대하여 추가비극 막아야. 두 드라마를 통해서 보는 장애인의 삶과 현실, 장애 가정 잇따른 비극...'24시간 지원체계' 절실(2022-05-26), [뉴스메이커] 우영우 (2022-07-12), '니 얼굴' 정은혜 작가 "그림 그리며 시선강박 극복했어요" (2022-07-03)

최근 장애인을 돌보는 부모가 아이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극이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현장에선 부모의 도움과 관계없이 장애인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24시간 지원체계'가 절실하다고 호소합니다. 서울 성동구에서 발달장애가 있는 6살 아들을 키우는 40대 여성이 아이와 함께 아파트 21층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같은 날 인천에서는 60대 여성이 30년 동안 돌본 장애인 딸을 살해하고,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장애인 부모들은 한목소리로 돌봄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사태라 지적합니다. 가족들이 돌봄에 대한 모든 부담을 떠안은 상황에서 비극적인 죽음이 또다시 반복됐다는 겁니다. 대안으로는 24시간 지원 체계가 필요합니다. 장애인이 부모에게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공적인 시스템에 기대 평범하게 살 수 있는 지역 사회를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가장 시급하게는 활동 보조인 문제부터, 교육, 직업 등 생애 전반에 걸쳐 국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뜻합니다. 그러나 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뒤따라 나옵니다. 우리나라가 장애인 복지에 사용하는 예산은 OECD 꼴찌 수준이고, 장애인 복지 예산 편성에 여전히 소극적이라는 평가입니다. 되풀이되는 비극을 방지하기 위해,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인 장애인 복지 대책이 요구됩니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체계가 극히 미흡하여 가슴 아픈 희생이 잇따르고 있는 요즘,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두 편의 드라마가 시청자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변호사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선 천재적인 두뇌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동시에 가진 변호사를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매회 등장하는 각종 사건을 우영우만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드라마 속 주인공인 우영우가 장애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로 그려지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시청자들은 장애에 대한 편견을 깨고 우영우라는 존재 자체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드라마가 장애를 가볍게 다루는 것만은 아닙니다. "80년 전만 해도 자폐는 살 가치가 없는 병이었습니다. 지금도 의대생이 죽고 자폐인이 살면 국가적 손실이라는 글에 수백 명이 '좋아요'를 누릅니다. 그게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장애의 무게입니다." 늘 장애에 당당히 맞서는 우영우의 나지막한 독백입니다. 여전히 사회 곳곳에 존재하는 자폐에 대한 사회의 시선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자극적이거나 충격적인 이야기로 시청자들의 시선을 붙잡지 않습니다. 현실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을 법한 사건들을 다루며 선함의 힘을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죠. 또한, 최근에는 발달장애인 작가 정은혜씨의 홀로서기를 그린 다큐멘터리 '니 얼굴'이 개봉했습니다. 드라마에서 장애인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연기하면서 큰 호응을 얻었는데요. 다큐멘터리 '니 얼굴'의 주인공으로, 최근 종영한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린 정은혜 작가. 과거엔 발달장애인을 향한 시선이 두려웠지만, 요즘엔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의 따뜻한 시선을 느낀다고 합니다. 지난달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니 얼굴'은 은혜씨가 사람들의 얼굴을 그리며 캐리커처 작가로서 홀로 서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성인이 된 후 갈 곳이 없었던 은혜씨는 집안에만 갇혀 한때 조현병을 겪을 정도로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문호리 마켓에서 4천여명의 얼굴을 그리며, 사람들과 소통한 덕분입니다. 발달장애인은 누구보다 사회와의 소통을 원하지만, 가족들의 부양만으로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서 감독은 은혜씨가 그림으로 사회와 소통했듯이 대부분의 발달장애인들이 혼자서 예술활동을 많이하고 있으며, 그들의 비언어적인 표현들을 관심을 갖고 이들이 좀 더 세상 밖으로 나가서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를 하루빨리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잇단 비극적인 사건들과 맞물린 장애인 관련 드라마의 흥행으로 인해 장애인들의 어려운 삶과 그에 비해 형편없이 낮은 국가사회 지원체계의 문제점이 점점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들에 대한 보다 많은 예산지원과 시스템 정비 및 확실하고 실질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서 다시는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체를 가꾸어나가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보도와 대안제시로 하루속히 구체적인 방안에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를 기대합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사회부에서는 지난달 23일 발달장애 문제와 관련해 3건의 특집기획 리포트를 제작해 방영했습니다. 또 김예림 기자는 스튜디오에 출연해 취재 후기와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발달장애 뿐만 아니라 여성, 청소년 등 사회적 소수자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도하겠습니다.

[발달장애①/이화영] 보호자 없는 발달장애 형제...돌봄 '사각'

[발달장애②/김예림] 갈길 먼 발달장애인 탈시설..."법적 기반 필요"

[발달장애③/윤솔] 지역사회 자립은 걸음마 수준..."지원 늘려야"

▲ 김희중 위원

- 7.12일자 '금리뛰자 신용대출부터 위축.....은행들은 생색내기' 기사에서는 치솟는 금리 영향으로 가계대출 중 6월 신용대출이 통계작성이래 최대폭으로 줄었다는 내용과 은행들이 금융당국의 이자 장사 경고에 금리 인하에 나섰지만 별 효과는 없는 생색내기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음. 뉴스에서는 먼저 6월 신용대출 감소 원인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대출금리 상승이 큰 것으로 확인했고, 이자 장사에 대해서는 금융당국과 정치권의 '이자 장사' 압박에 따라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에서 주담대 최고금리 인하와 하나은행의 소상공인 대출만기 연장시 이자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지만 막상 뜯어보니 △금리인하 혜택의 대상이 적고 인하폭이 작다는 점 △ 기존대출자가 아닌 신규대출자라는 점 등을 들어 사실상 '금리 인하' 효과가 없어 금융당국의 압박이 효과가 없었다는 맥락의 비판적 뉴스로 보여짐. 금융당국의 구두 개입으로 관치 논란이 있기도 하지만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 금리 인하는 반가운 뉴스임. 다만 뉴스에서는 은행의 생색내기 금리 인하에 대한 실효적인 대안 제시 없이 당국의 압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으로 황급히 마무리된 느낌이 듦. 관치 논란에 앞서 이자 장사란 말도 틀린 말이 아닐 만큼 은행들이 높은 수익을 올리는 것도 사실임. 또 앞으로 얼마나 더 금리가 오를지 알 수 없을 만큼 금융비용 부담이 커진 금융소비자를 위한 노력도 필요한 것도 사실임. 따라서 은행들의 생색내기 금리 인하 실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취재하고 당국의 구두 압박도 효과가 없었던 만큼 또 다른 대안은 무엇이 있는지 금융당국과 전문가들의 코멘트를 반영한 후속 기사를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음.

▲ 추승호 보도본부장

금리가 계속 뛰고 은행들이 큰 이익을 내고 있는데, 관치 논란이 있더라도 금리 인하 자체는 소비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며 구체적 대안없이 정부의 조치가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지적으로 황급히 마무리한 느낌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뉴스를 제작하는 저희들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지금은 세계적으로 통화 긴축 탓에 금리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은행들도 예금을 받거나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데 이 금리가 계속 오르니 비싸게 조달한 돈으로 실시한 대출의 금리도 오를 수밖에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 '경고'와 같은 관치금융을 통해 금리를 하향기조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이라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아울러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은 돈이 너무 풀려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되고 있으니 은행은 대출을 억제하고 금융소비자는 투자 등을 위한 무리한 대출을 자제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런 시기에 무리한 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부담만이 문제가 아니라 자칫 대출 자체가 부실화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이자 상승은 경제 안정화를 위해 어느 정도 용인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당국은 "이자를 내리라"는 명령조의 관치가 아니라 최근 발표해 저희도 보도한 것처럼, 예대금리차를 한데 모아 짧은 주기에 공시하고 대출시장 경쟁을 높이는 등의 조치를 통해 금리상승기에 편승해 시장금리 상승폭을 훨씬 웃도는 약탈적 금리인상을 억제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세한 위원

- <[단독] 보험금 노리고 택시에만 '꽝'...오토바이 주의보> 기사 취재기자 추가 취재 눈에 띄어, 7월 10일자 <[단독] 보험금 노리고 택시에만 '꽝'...오토바이 주의보> 기사는 택시기사들이 사고가 나도 여러 가지 이유로 현금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이용해, 3개월 동안 똑같은 수법으로 8명의 택시기사 8명을 상대로 고의로 오토바이 사고를 낸 사건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시청자들이 관심을 갖고 볼만한 뉴스를 가장 먼저 보도했다는 점도 칭찬할 일이지만, 강남경찰서에서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이라는 소식을 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택시회사 관계자나 금융감독원 관계자까지 추가 취재를 해서,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한 배경까지 보도한 점이 돋보였습니다. 또 실제 이번에 보도된 피의자의 영상인지 모르겠지만 오토바이 운전자가 일부러 택시에 다가가 부딪치는 블랙박스 영상까지 구해 보도함으로써 생생한 현장감이 느껴졌습니다.

- 이준석 징계위원회 심의 결과 발표, 새벽에 신속한 대응 돋보여, 지난 7일 진행된 국민의힘 당 윤리위원회의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심의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었습다. 애초 예상했던 것보다 이 대표의 소명이나 회의 시간이 길어져 최종 결과가 자정을 넘겨 새벽에 나왔습니다. 연합뉴스TV는 8일 새벽 2시 56분 첫 번째 속보 기사 <[속보] 與윤리위, 이준석 '당원권 정지 6개월' 결정>을 출고한 뒤, 새벽 3시 7분 <[현장연결] 與윤리위 "이준석 '당원권 정지 6개월' 결정"> 보도를 통해 이양희 윤리위원장의 발표 장면을 생중계했습니다. 이후 새벽 3시 38분 <국민의힘 윤리위, 이준석에 '당원권 6개월 정지' 결정>이라는 후속 보도를 與 윤리위, 새벽 5시 21분 <이준석에 '당원권 6개월 정지' 결정> 기사를, 또 새벽 5시 54분 <[녹취구성] 이준석, 당원권 6개월 정지 처분..."품위 유지 의무 위반"> 기사를 연이어 보도했습니다. 보도전문 채널로서 연합뉴스TV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뿌듯했습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 (오토바이 주의보) 앞으로도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보다 더 밀착해서 보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준석 징계) 격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관심이 큰 사안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고 충실하게 보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천경숙 위원

- 7월 10자 오후 1시, 7월 11일 오전 6시, 7월 11일 오전 8시 우회전 시 보행자 확인...개정 도로교통법 모레 시행, 7월 12일부터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는 내용의 뉴스가 7월 10자 오후 1시, 7월 11일 오전 6시, 7월 11일 오전 8시 3일 동안 방송되었다. 앞으로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지나가는 사람이 없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주변을 살핀 뒤 주행해야 하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시행 초기에는 많은 혼란이 생기겠지만 보행자가 우선이 될 수 있는 그날까지 연합뉴스tv에서 지속적인 방송을 했으면 합니다.

- 7월 11일 오후 3시, [이슈현장] 학교앞에서 초등생 덮친 굴착기 '민식이법' 적용 안 돼...이유는? 평택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7월 7일 오후 4시경 굴착기가 어린이 두 명을 덮쳤고 이중 한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가 사망하는 일이 발

생했지만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내용을 시청자가 이해하기 쉽게 방송을 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엔 가중 처벌을 받지 않는 내용을 그래픽 처리를 하여 시청자로 하여금 이해하기 쉽게 방송이 되었습니다. 앵커의 질문과 변호사의 답변으로 알기 구성하여 시청자가 궁금해하는 내용을 잘 표현한 것 같아 시청하는데 좋았습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후한 평가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일상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시청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픽이나 영상자료를 활용한 전문가 대담을 적극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혁남 위원장(서면제출)

- 5월 30일 오전 11시 45분-12시 55분에 방송된 '뉴스센터 12'. 당시 정치권 이슈에 대해 대담하는 과정에서 인천 계양을 재보선 소식을 다루며, 진행자가 "(전략)안철수 후보 얘기도 좀 해보면요. 이재명 후보 주말 내내 본인 선거에 집중을 했고 그리고 오늘도 계양 유세에 집중을 할 계획인 반면에, 지금 안철수 후보는 지난 주말에 계양까지 와서 지금 지원 유세를 했거든요. 상대적으로 좀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라고 발언하고, 이어 출연자(최창렬)가 '분당갑 지역은 대선 때 국민의 힘이 더불어 민주당을 누른 곳으로, 안 후보가 현재 상대 후보를 상당히 앞서고 있고 확실히 여유가 있어 보인다. 반면 계양을 지역은 현재 이 후보가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후보는 이 후보를 확실히 낙마시키기 위해 계양 지역에 지원유세를 간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이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어떤 성적을 거두는지가 향후 정치지형에 큰 요소가 되기 때문에, 계양을 보선은 단순히 한 지역구의 보선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취지로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하였다. 인천 계양을 재보선 소식을 전하며, 선거 직전 주말 이틀 동안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후보가 타 지역 지원유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는 다른 지역 선거운동을 하지 않은 반면, 안철수 국민의 힘 경기 분당갑 국회의원 후보는 다른 지역까지 지원유세를 갔다'며 사실과 다르게 소개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되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을 후보가 선거 직전 주말에 본인의 출마 지역 외에도, 경기 김포(5.28.토), 고양·파주(5.29.일)에서 지원 유세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민적 관심사가 매우 높고, 정파 간의 이해가 심하게 엇갈리는 사안이 있음에도 진행자, 패널리스트, 방송 관계자 모두 사실 확인을 철저히 하지 못하였다는 점이 문제라 하겠다.

▲추승호 보도본부장

패널 대담의 경우 작가와 패널의 리스크가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이번 사안에서도 보듯이 작가가 잘못된 언론 보도를 인용해 질문을 작성하거나 잘못된 자막 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뉴스총괄부의 총괄데스크가 방송 전에 수정해야 하는데, 데스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또 질문이 제대로 작성됐더라도 패널이 잘못된 내용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총괄데스크나 피디, 앵커 누구라도 잘못된 패널의 발언을 잡아내 앵커로

하여금 즉시 정정하거나 최소한 해당 방송이 끝나기 전에 정정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패널 대담의 리스크를 줄이는데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 문해주 위원(서면제출)

- < 과학기술계의 쾌거 2건 > (첫째는 누리호 2차 발사 성공...세계 7번째 위성 발사국 도약, 위성 양방향 교신 및 큐브위성 사출과 교신 성공, 달 탐사선 발사) 이번 누리호 2차 발사(6.21) 관련 뉴스는 작년 10월 1차 발사 때의 보도에 대한 아쉬움을 모두 극복하고 연합뉴스tv의 여러 뉴스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하고 심층적으로 보도하고 많은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궁금한 점을 반복해서 상세히 Q&A 형식으로 방영해줌으로써 시청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궁금증을 충족시켰으며 국민적 관심과 우주개발 활성화를 위해 일조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높이 평가하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5시간 이상 특집 편성, 현지 스튜디오 운용과 생생한 현장화면, 광고시간 최소화, 많은 전문가 활용, 준비된 앵커 등, 8월 3일 미국에서 발사 예정인 달 궤도선 '다누리' 일정에 대해서도 7월 7일 미국 플로리다에 도착한 것을 계기로 많은 보도가 있었으며, 향후 8월 초에도 다양하고 심도 있는 보도가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 (둘째는 허준이 교수, '수학계 노벨상' 필즈상 수상...한국계 최초) 7월 5일 허준이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 겸 한국 고등과학원 수학부 석학교수가 '수학계 노벨상' 필즈상을 수상했습니다. 허 교수는 대수기하학의 토대가 더욱 확장되도록 새 지평을 연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계 최초로 필즈상 수상의 쾌거를 이룩하였습니다. 이에, 연합뉴스tv는 허 교수의 필즈상 수상은 올해 국제수학연맹에서 한국의 수학 국가등급을 최고등급으로 상향한 것에 이은 기쁜 소식이라는 내용과 다양한 각도로 보도하고 뉴스메이커 등에서 허준이 교수를 조명한 점에 대해 긍정 평가합니다. 그러나 과학기술계에서는 허준이 교수의 필즈상 수상 관련 언론들의 보도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매 4년마다 시상하는 필즈상(Fields Medal)은 공동수상이 불가능하고 4명까지만 수상이 가능하며 노벨상(매년 수여, 많은 공동수상자)보다 오히려 수상하기 어렵고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이에 걸맞게 대대적인 보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다른 언론뿐만 아니라 연합뉴스tv에서도 조금은 보도가 부족하다는 느낌입니다. 또한 허준이 교수의 수학 학습법에 주목하면서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 교육과정 개편을 추진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삼아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연합뉴스tv에서 선제적으로 '허준이 교수의 필즈상 수상과 우리나라 교육과정'을 조망해보는 기획보도를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 (누리호 발사관련) 다누리의 경우 발사 현장이 미국이고 국가기구가 아닌 기업의 로켓에 실려 가는 것이라 풀취재에 의존해야 하는 등 정보 및 영상 접근이 누리호에 비해 매우 제한적입니다.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대한 국민적 관심사에 대해 접근할 계획입니다.

- (필즈상 수상) 허준이 교수와 관련해 연합뉴스TV는 글로벌 뉴스부와 경제부, 사회부 등이 나서 수상속보를 시작으로, 업적과 인물을 분석하는 기사, 수상식 기사, 귀국시 현장연결, 인터뷰 기사 등을 상세히 다뤘다고 생각합니다. 의의가 크더라도 시간 제한이 있는 방송뉴스의 사정상 (경제뉴스의 경우) 코로나 재확산, 원숭이 두창, 금융시장 혼란, 부동산 동향과 새 정부의 경제정책 등 다른 중요 뉴스들도 산재해 허 교수 관련 기사에만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점, 허 교수의 업적과 관련한 부분은 수학 전공자도 관련 분야 전공자가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보도에 한계가 있는 점을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환익 위원(서면제출)

- 보도내용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핵심적인 용어에 대한 설명이나 의미를 간단하게라도 설명할 필요가 있음, 지난 7월7일 아침 방송에서 “최대 전력수요 9만1천MW...작년 여름 최대치 경신”제하의 보도가 있었음, 7월초 임에도 불구하고 때이른 더위로 인해 작년 7월말에 나타났던 최대 전력 수요를 넘어섰다는 내용과 함께 전력예비율이 8%대까지 떨어져 연중최저치를 기록했다는 보도였음. 스트레이트성 현황보도라는 점에서 동 보도내용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고 수요최고, 최저치 경신 등 주요단어만으로도 상당히 불안하다는 의미를 어느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시청자 눈높이 차원에서 전력예비율이 어떤내용이고 8%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간단하게라도 짚어주었으면 비전문가들이 대부분인 일반시청자들의 이해도가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음
-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수식어 등은 자제 필요, 지난 7월6일 저녁 방송(19:53)에서는 금융기관들의 과도한 예대마진에 대한 비판내용을 보도하면서 예대마진 현황과 이를 제한하기 위한 정부의 예대마진 현황 매월공개 방침을 보도하였음, 주요내용은 예대금리차가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금리차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통해 지나친 금리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의 정부방침을 설명하는 보도였음, 보도내용은 충분히 이해했지만 “눈속임식”이라는 수식어는 그동안 금융기관들이 금리차를 속여왔다는 내용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었음. 기존에도 공개주기가 3개월단위로 길었고 해당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찾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금리차를 속여왔다는 내용은 보도 어디에도 없었음에도 “눈속임”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하는 것은 다소 과도한 것이 아닌가 판단됨

▲ 추승호 보도본부장

- (용어 설명 필요) 해당 단신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겨울 전력 수요까지 늘면서 최대 전력수요와 예비율에 관한 기사가 연간 7,8월과 1월 정도에 연례적으로 등장하고 있고 전력 예비율이 ‘남은 전력 비율’이란 의미로 쉽게 이해될 것으로 판단하고 기사 길이를 고려해 자세한 설명을 넣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단신이 좀 더 길어지더라도 해당 내용을 가급적 자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수식어 문제) 해당 기사에 금리차를 속인 사례가 없는데 ‘눈속임’이란 표현을 쓴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통상 은행들은 매번 수신금리를 소폭만이라도 올리거나 일정액 이상 카드사용 등 다른 부대조건을 충족할 경우만 제한적으로 지급되는 이자 등은 예외없이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관련 상품을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대대적으로 알리는 반면, 여신 금리 인상이나 조건 악화, 우대금리 축소, 가산금리 상향 등은 잘 알리지 않아 실제 대출을 받으려 상담하지 않는 이상, 대출금리가 올랐는지 또는 얼마나 올랐는지 자체를 잘 알지 못합니다. 아울러 발표주기는 3개월에 은행별로 찾아봐야하니, 수신금리가 올랐다는 것만 알려지고 수신금리가 올라도 예대금리차는 되레 벌어지고 있음은 잘 알려지지 않는 ‘정보 비대칭’이 심각하며 이를 통상 ‘눈속임’으로 표현합니다. 저희 리포트는 서두에서 이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금융당국도

이런 문제를 인지하고 있기에 예대금리차 확대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한 곳에 모아 매월 공시하도록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날 리포트는 정부의 이 문제에 대한 대책 발표를 다룬 리포트로, 이에 중점을 둔 것이며 구체적 사례들을 좀더 넣으려했으나 리포트가 일반적 기준에 비해 너무 길어져 삭제하고 전체 지표를 보이는 것으로 대체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적절한 용어 사용에 더욱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리포트의 내용은 최대한 자세한 것이 바람직하나, 방송시간이란 현실적 제약을 넘어설 수 없고 한 편의 리포트에 저간의 모든 사정을 담는 것도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